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변화의 시작

BTF 푸른나무재단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가 함께 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재단으로,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 IMPACT GROUND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 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행일	2025년 12월
이메일	contact@brianimpact.org
홈페이지	www.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주)한국사회가치평가

Contents

1	푸른나무재단	04
	푸른나무재단의 시작	
	푸른나무재단이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10
	임팩트그라운드와 함께 도약한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13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 하이라이트	
	임팩트 1. 디지털 시민 교육 접근성 향상	
	임팩트 2. 디지털 시민 교육 콘텐츠 다양화	
	임팩트 3. 디지털 시민성 교육 교사 역량 강화	
	임팩트 4.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기여	
	임팩트 5. 디지털 시민성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28

2024 IMPACT REPORT

1 푸른나무재단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치유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Youth First’ 정신 아래 비폭력의 문화를 확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의 시작

1995년 6월, 학교폭력 피해로 16살의 나이에 죽음을 선택한 한 소년의 아버지는 다시는 이 땅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푸른나무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조차 자리잡지 않았던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푸른나무재단은 약 30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국의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부터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실시해 학교폭력 예방법과 정부 학교폭력 정책 개정 등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고, 화해 및 분쟁조정에 힘쓰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활동을 통해 청소년 폭력 피해의 실질적 예방과 회복에 기여해 왔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이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행복 역량을 증진시켜 희망을 꿈꾸도록 돕는 NGO

신뢰와 공감을 통한 회복과 치유를 함께하는 NGO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하여 건강한 정서와 인성을 키우는 NGO

청소년 친화적 문화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NGO

국제연대를 통해 비폭력 문화를 확산하는 NGO

미션

비전

주요 사업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며,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이 발표한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98%가 사이버폭력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45.5%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며,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피해 집단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뉴스투데이, 2024).¹⁾ 사안의 심각성에도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1) 박효영. (2024, 7월 24일). 사이버폭력부터 가해자 맞선고까지... '학폭 피해자 가족' 고통 극심. 뉴스투데이.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56>

푸른나무재단이 인식한 디지털 교육 환경의 문제점



디지털 폭력에 대응할 시민적 소양을 길러온 푸른나무재단

디지털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온라인 환경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시민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푸른나무재단은 '디지털 시민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이나 사이버 괴롭힘을 자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익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Mossberger et al., 2008). 2015년 카카오펍트와의 협력을 통해 푸른나무재단은 국내 최초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출범했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며 온라인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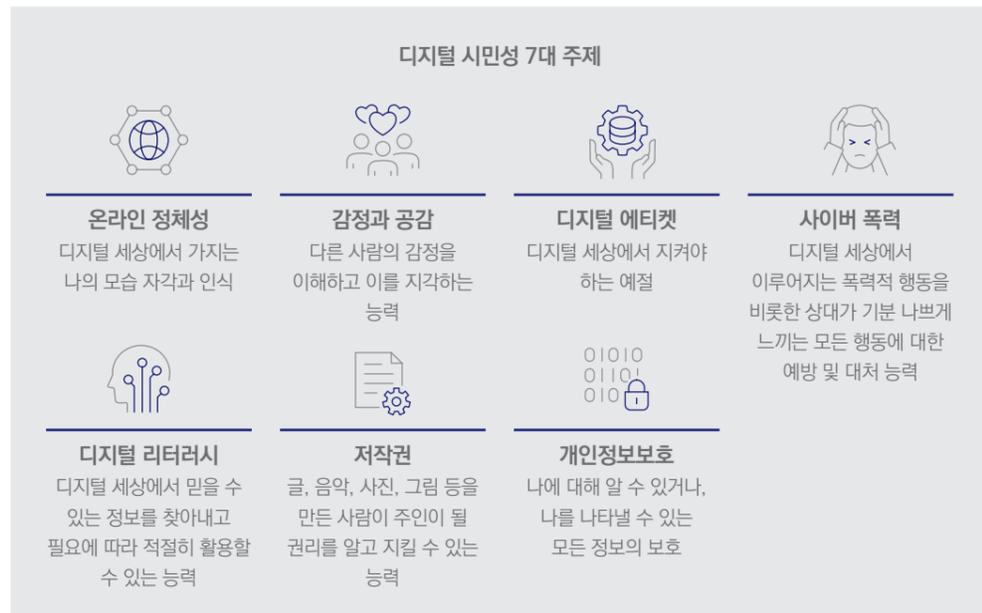


*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행동 양식

푸른나무재단이 정의한
디지털 시민성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 디지털 시민성 오프라인 교육의 체계적 실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끔 하는 교육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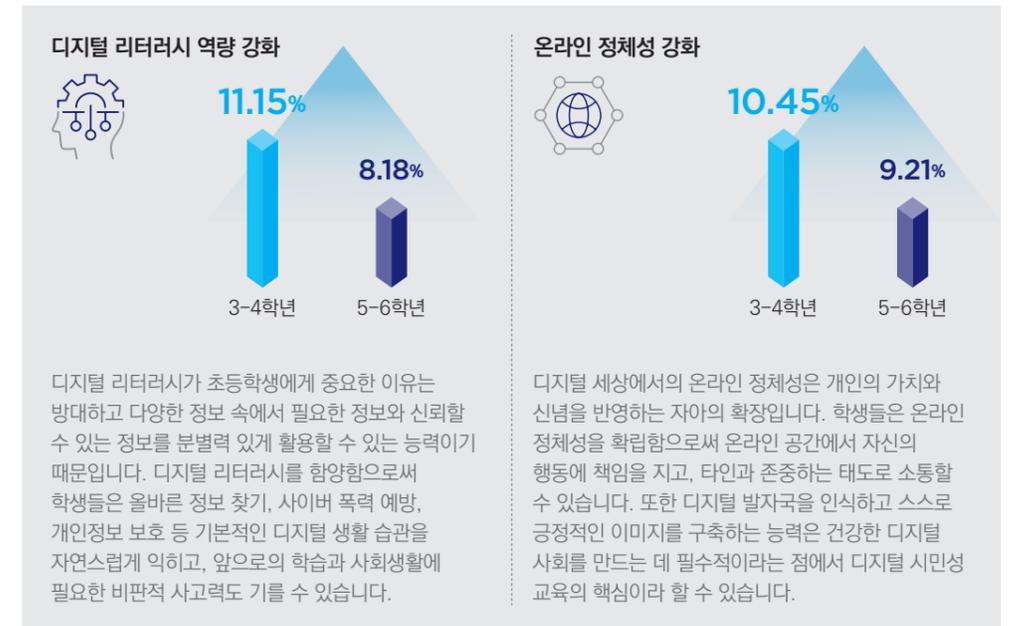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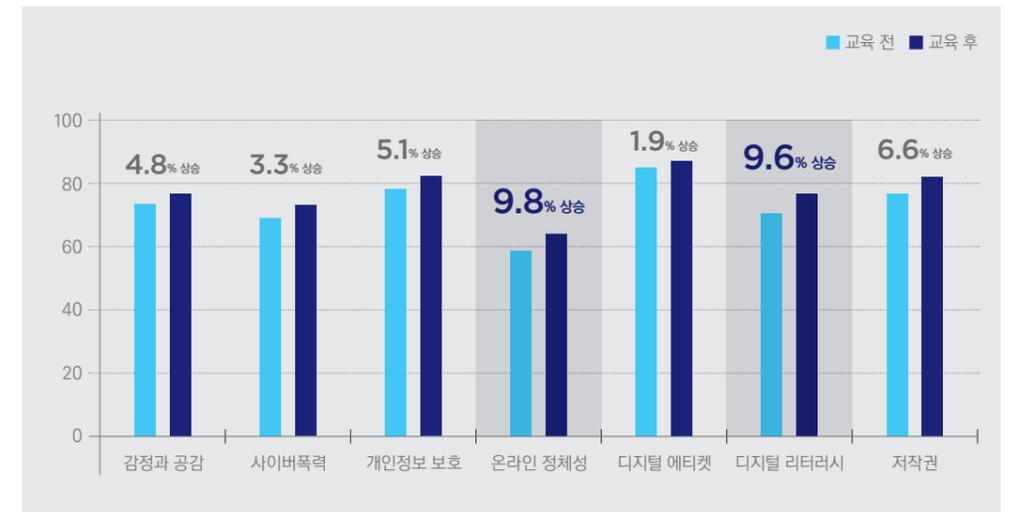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성, 시간, 예산 등의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오프라인 교육으로서 전국 2,503개 학교, 12,313개 학급, 271,993명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역량 강화 효과성을 입증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푸른나무재단은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성 연구를 진행해 본 프로그램이 디지털 시민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전 학년에 걸쳐 디지털 시민성 전 영역의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학년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정체성 항목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3~4학년은 저작권 항목에서, 5~6학년은 개인정보보호 항목에서도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초등학교
3~6학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효과성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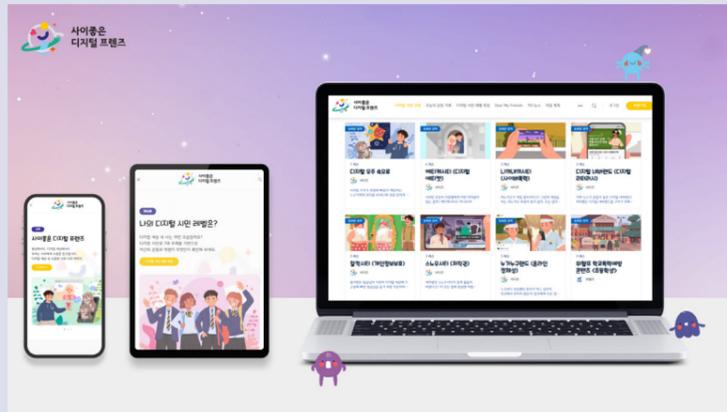


디지털 리터러시가 초등학생에게 중요한 이유는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분별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함으로써 학생들은 올바른 정보 찾기, 사이버 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적인 디지털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앞으로의 학습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온라인 정체성은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자아의 확장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과 존중하는 태도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발자국을 인식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능력은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4 IMPACT REPORT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돕는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시민교육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함께 존중과 공감의 디지털 생태계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와 함께 도약한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효과성이 위와 같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에 따라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프로그램이 바로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입니다. 온라인 공간으로의 전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의 긍정적 가치를 더욱 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를 통해 추진된 사업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첫째, 전국적 확장이 가능한 디지털 시민성 플랫폼의 개발과 구축
- 둘째, 단체 교육의 질을 향상할 단체 교육형 교구 지원
- 셋째, 디지털 시민성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
- 넷째, 디지털 공간의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센터 운영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 학습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상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연수와 콘텐츠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역량 강화를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이 만나는 디지털 공간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유해 콘텐츠 대응, 캠페인 활동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시민 환경 개선까지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디지털 시민성 플랫폼

- 학습 참여자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돕는 교육 영상, 보조활동, 활동지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

단체 교육형 교구 지원

- 디지털 시민성 교육 지도안, 보조 활동 도구, 참여 보상품 제작
- 신청 단체에 교구 제공, 관련 이론 및 활용법에 대한 세미나 운영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확산, 광장거리 캠페인 및 부스 운영
- 시민들에게 디지털 시민성·사이버 폭력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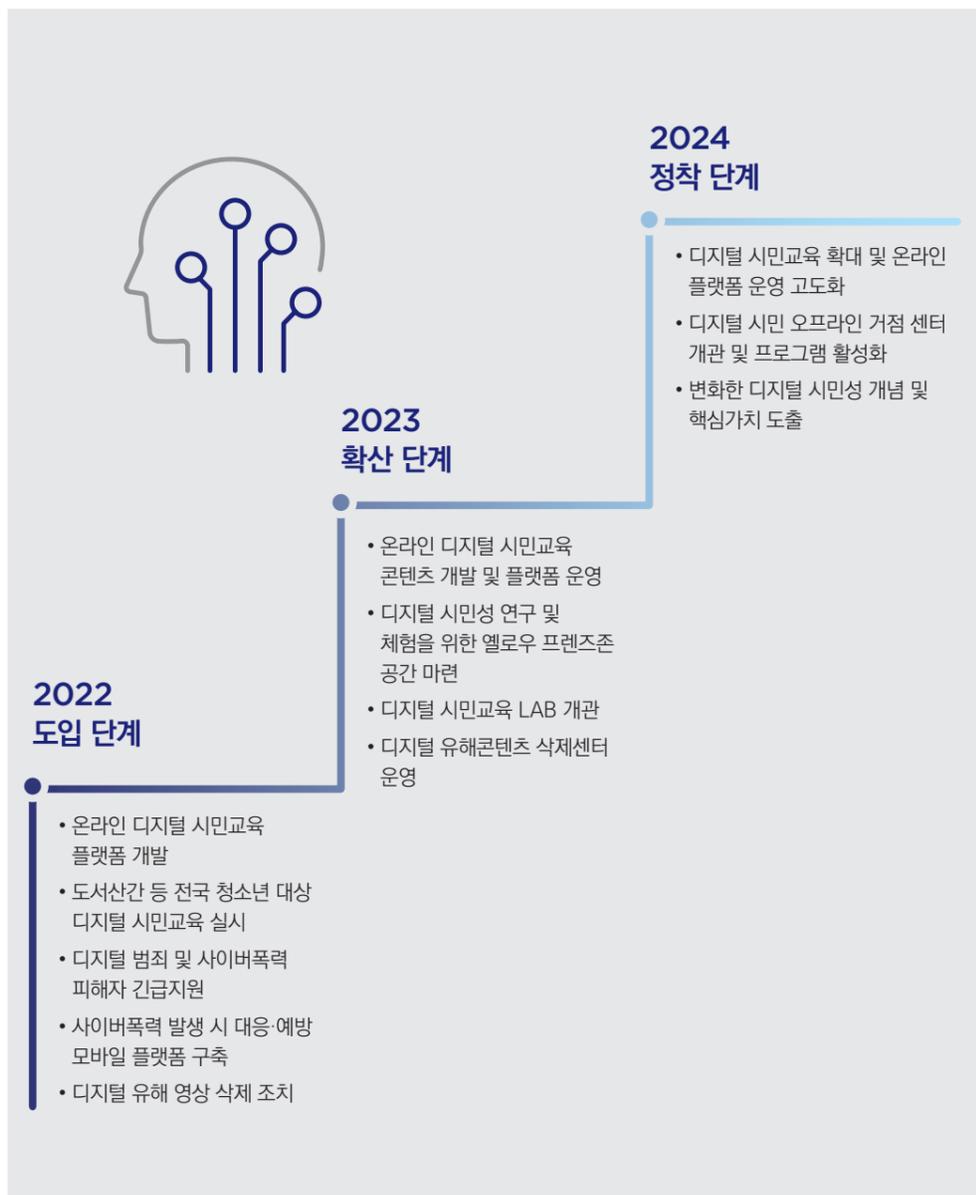
유해 콘텐츠 삭제 센터

- 아동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혐오표현이 나타나는 영상 모니터링, 트렌드 조사, 삭제

푸른나무재단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자 합니다. 나아가, 주변의 어른들이 그 여정을 든든히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는 디지털 시민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2022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장해 왔으며, 2024년에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디지털 시민교육의 확산 및 운영의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의 확산 및 운영의 고도화



2024 IMPACT REPORT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사업은 청소년과 교사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예방과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끌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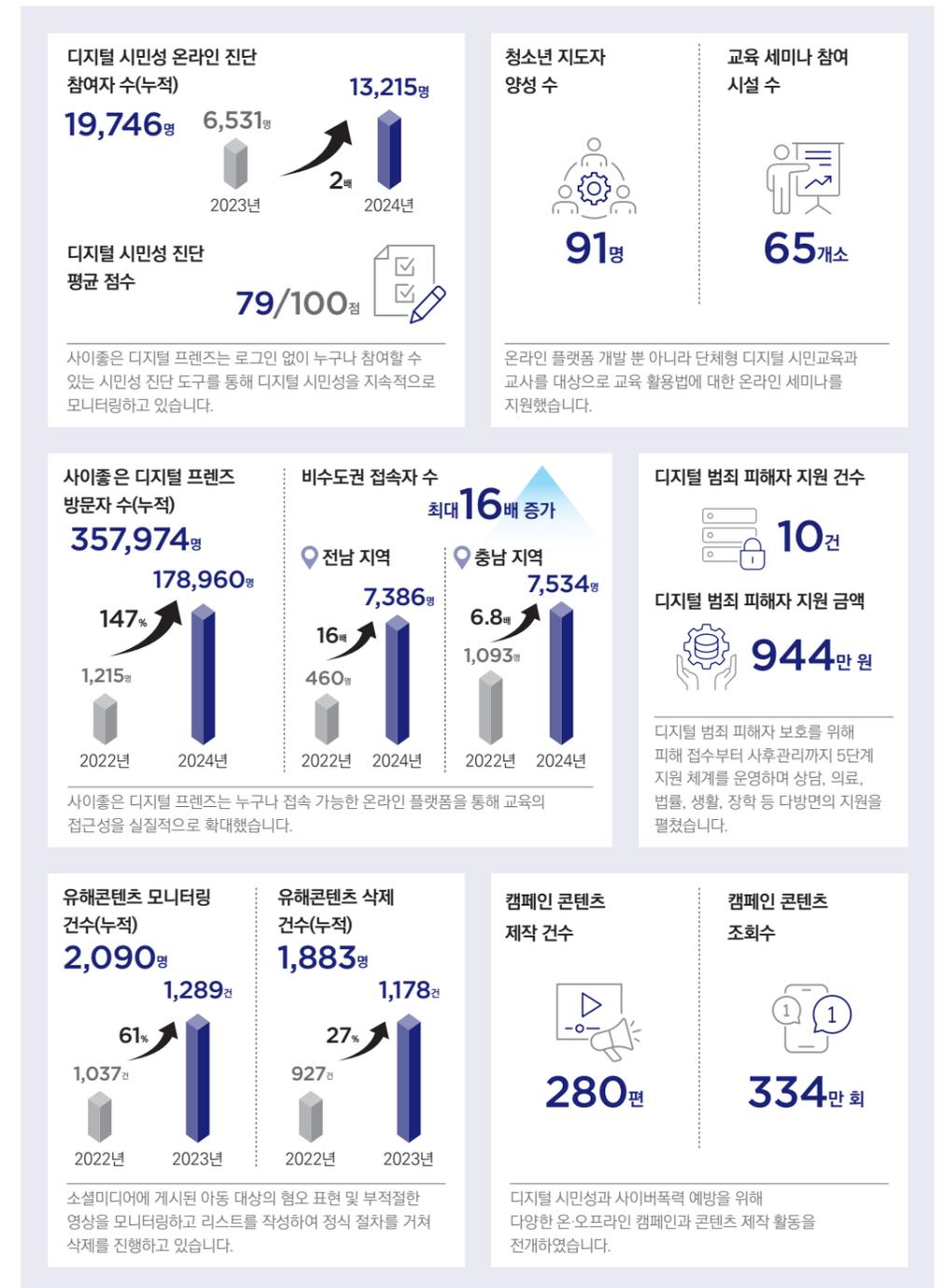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통한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사업의 주요 임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 세대 양성
 둘째,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해 해결 지원체계를 강화
 셋째,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 문화 확산,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

임팩트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디지털 시민성 언급량↑, 긍정평가↑)		
	디지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 세대 양성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 기반 및 피해 해결 지원체계 강화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 책임 있는 디지털 행동 문화 확산
성과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디지털 시민성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콘텐츠 다양화 디지털 시민성 참여자 4배 증가 비수도권 참여율 최대 16.1배 증가 교육 대상 연령층 청소년으로 확대 효과 모니터링 툴 적용 3배 확대	지도자 역량 강화 교사 대상 세미나 만족도 4.77/5점 65개 시설 교육 참여 청소년 지도자 91명 양성	디지털 폭력 피해 예방·회복 유해 콘텐츠 삭제 (모니터링 대비 90%) 피해자 지원금액 944만원 캠페인 카드뉴스 조회수 277만 회, 영상 조회수 56만 회
활동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찾아가는 학교교육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임팩트 하이라이트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한 2022년~2024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개발, 단체 교육 지원 사업, 유해 콘텐츠 삭제 센터 운영,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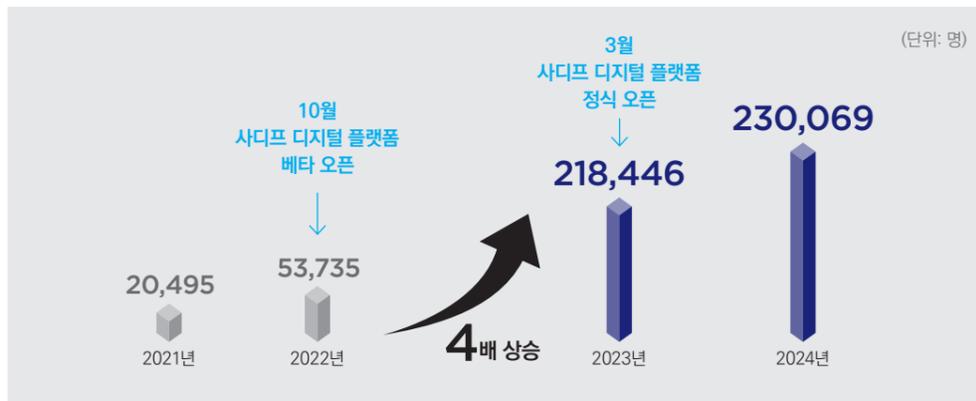
임팩트 1. 디지털 시민 교육 접근성 향상

온라인 플랫폼 오픈 후 디지털 시민교육 참여자 수 약 4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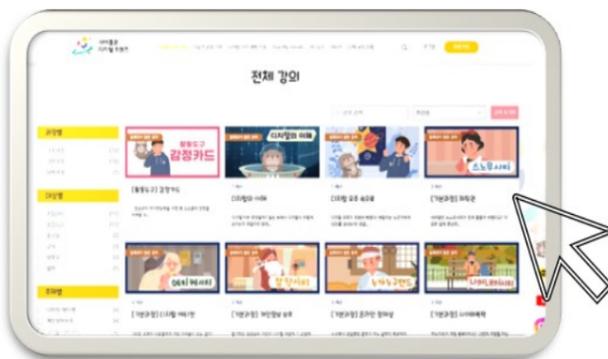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의 핵심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 교육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해, 누구나 무료로 디지털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홈페이지(<https://gooddigital79.org/>) 정식 오픈 이후 교육 참여자 수는 약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누적 방문자는 35만 7천 974명, 페이지 방문 수는 12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²⁾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존 수도권 중심의 오프라인 디지털 시민 교육을 온라인으로 누구나 무료로 접속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방문자 수(Unique View)를 통해 참여자 수를 추정한 결과, 2023년 온라인 플랫폼의 정식 오픈 이후 교육 참여자 수가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플랫폼 사용 현황(누적)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온라인 플랫폼에 연평균 178,000명의 청소년, 교사와 시민이 방문하고 있으며 페이지 방문 수는 연평균 600,00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방문자 수
357,97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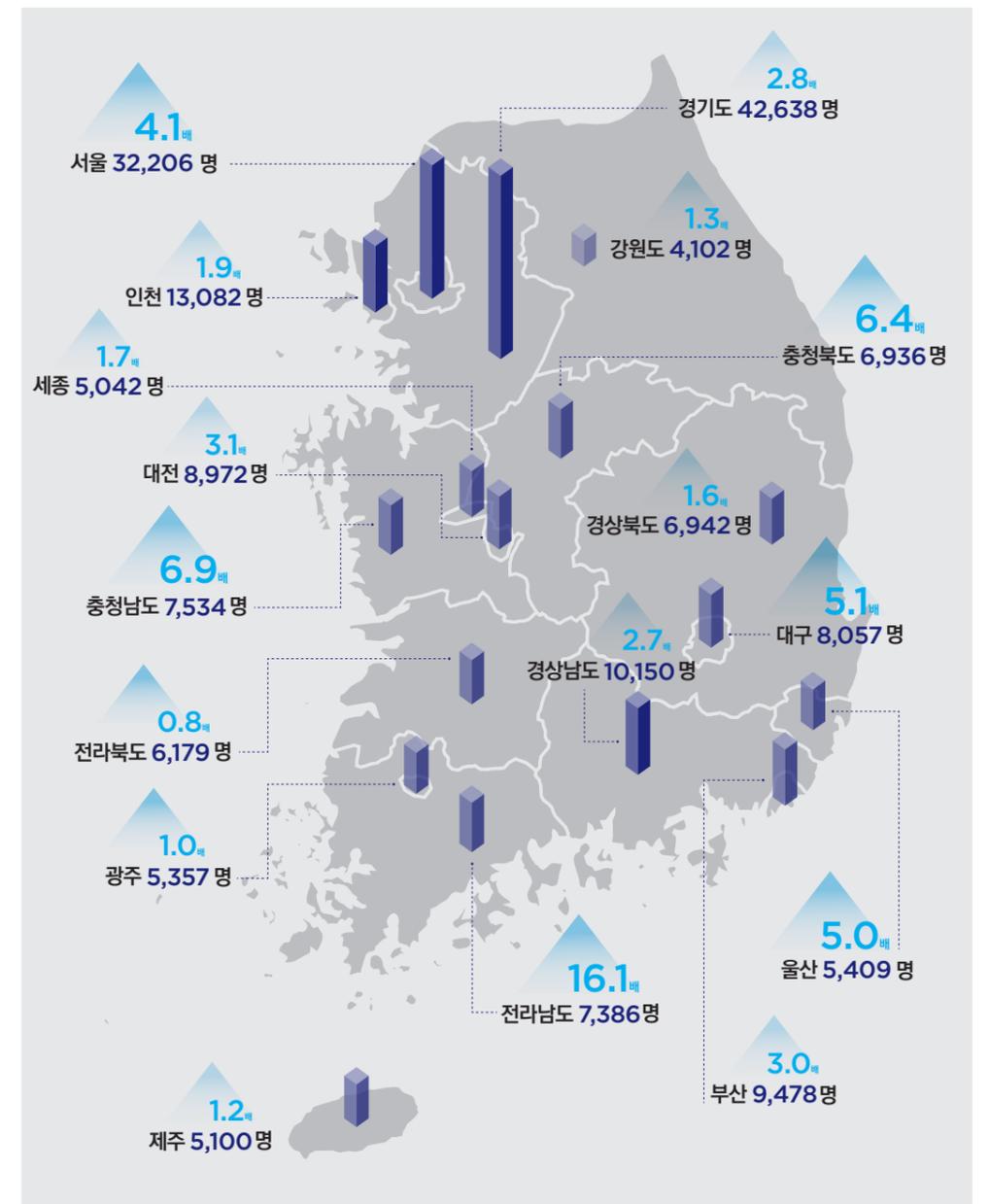
누적 방문 수
1,209,715회

2) 전체 누적의 시작일은 오픈 베타 서비스 안내일 기준(2022년 10월 20일)

비수도권 접속률 최대 16배 이상 증가

디지털 플랫폼 오픈 후 2023~2024년의 지역별 접속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청·호남 등 비수도권 지역의 접속률이 최대 16배 이상 증가하며 디지털 시민교육의 지역 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16.1배), 충남(6.9배), 충북(6.4배) 등에서는 참여자 수 확대가 뚜렷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접속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성과입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플랫폼 오픈 이후 기존 대비 교육규모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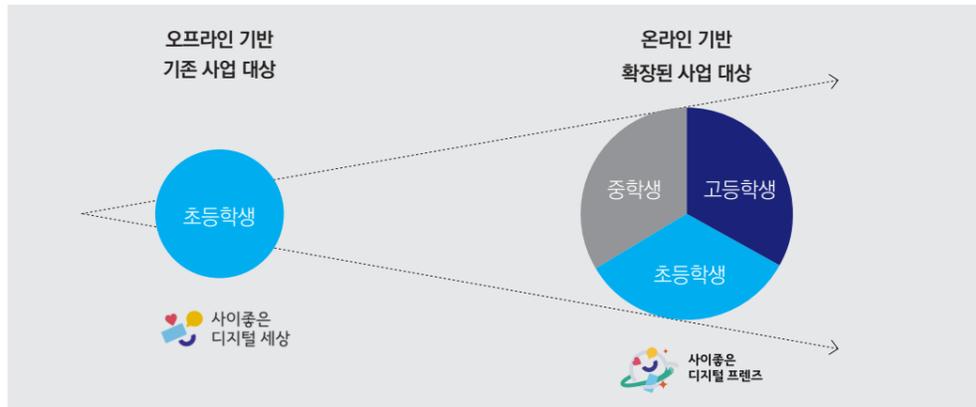


* 분석 데이터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플랫폼 접속자 수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지역 구분이 불가능한 3만 건과 해외 접속 7만 건은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연령대까지 교육 대상 확대

교육 접근성의 확대는 지역뿐 아니라 대상자 연령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오픈 이후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자 연령 확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기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가치관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발달 시기에 정보 판별력, 비판적 사고, 공동체 의식, 자기보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시민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시민사회 전반의 디지털 시민 역량 확충에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민성 자가측정 참여 200% 증가... 디지털 시민교육 독려 효과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 진단' 도구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공감·사이버폭력·온라인 정체성 등 7대 항목별 디지털 시민성 수준을 정량 측정하는 유일한 도구인 본 진단도구는 2024년에 전년 대비 참여자가 약 세 배 증가했으며 총 19,746명이 진단에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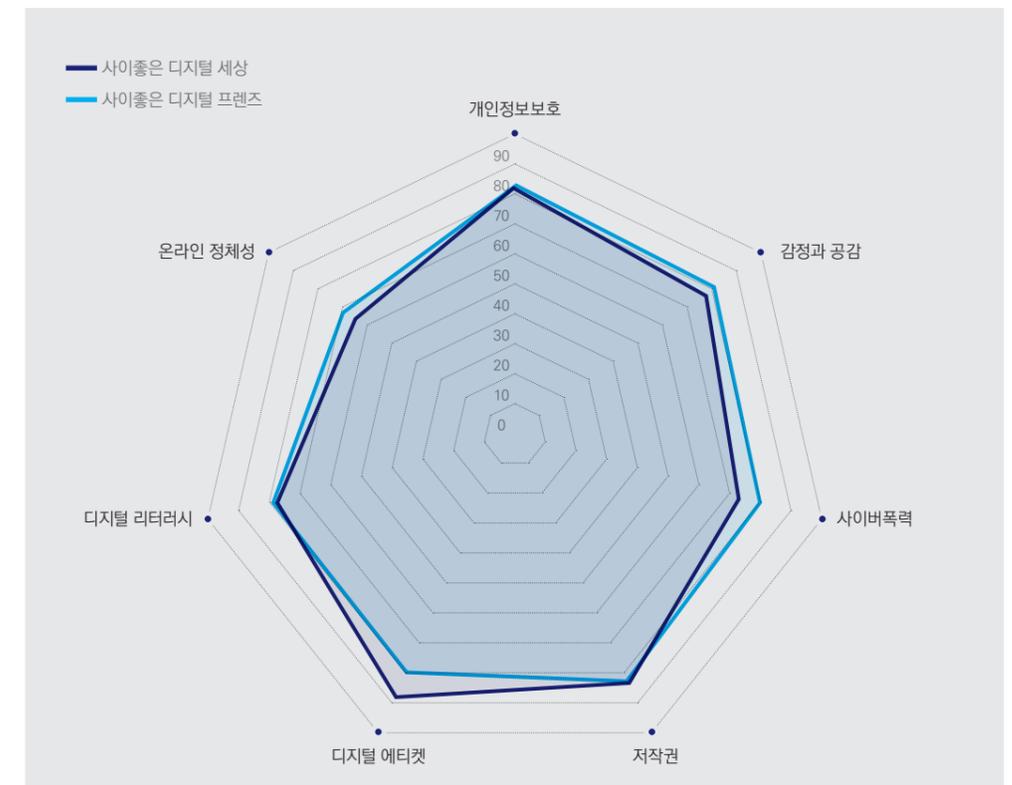


온라인에서도 재현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효과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참여자들의 디지털 시민성 점수를 기존에 오프라인 기반으로 진행되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성이 온라인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참여자들은 평균 약 80점의 디지털 시민성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접하고 테스트에 응시한 사용자들 역시 평균 약 79점으로, 오프라인 교육 수료자에 준하는 수준의 점수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들의 점수는 디지털 시민성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보호, 감정 공감, 저작권, 디지털 에티켓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오프라인 참여자들의 점수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오프라인),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온라인) 참여자 디지털 시민성 점수 비교



온라인 참여자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한 경험 자체가 기존 프로그램에 준하는 우수한 교육 효과를 발휘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으로 학습 효과성을 증명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온라인 기반의 방식으로 충분히 효과적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본 교육이 사회적 확장성 측면에서 갖는 유의미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석입니다.

임팩트 2.
디지털 시민 교육
콘텐츠 다양화

인터랙티브 요소가 포함된 온라인 콘텐츠로 쉽고 재미있는 학습 유도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6대 주제를 바탕으로 총 21편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누적 조회수는 약 14만 9천 회에 달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구성된 콘텐츠들은 질문 응답과 사고 유도를 위한 인터랙티브 요소를 포함해 교사의 지도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는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 따돌림', '언어폭력' 등으로, 교육 현장의 폭력 예방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별 조회수 (콘텐츠 개발 총 21편, 조회수 149,110회)

공통		
 디지털의 이해 (1,677회)	 디지털 우주 속으로 (3,516회)	콘텐츠 개수 2 개 조회수 5,193 회
기초과정		
 배려 (970회)	 용서 (860회)	콘텐츠 개수 6 개 조회수 3,493 회
기본과정		
 사이버폭력 (13,177회)	 디지털 에티켓 (3,360회)	콘텐츠 개수 6 개 조회수 23,076 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초등)		
 신체폭력 & 따돌림편 (24,712회)	 사이버폭력편 (18,537회)	콘텐츠 개수 3 개 조회수 60,939 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중고등)		
 사이버폭력편 (24,462회)	 언어폭력편 (14,301회)	콘텐츠 개수 4 개 조회수 56,409 회

※ 위 콘텐츠 예시는 콘텐츠 주제 분류별로 조회수 상위 영상 2편씩을 선정한 것입니다.

임팩트 3.
디지털 시민성 교육
교사 역량 강화

지도자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 기반 마련

푸른나무재단은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학급 단위의 단체형 디지털 시민교육 또한 지원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 관련 활동지, 지도안, 보조 활동 도구, 참여 보상품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그 활용법을 전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의 교사 연수는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 방식의 변화를 견인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해외 사례 및 실제 수업 사례 소개가 유익했습니다”

“감정 출석부를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해주어 좋았어요”

“수업 진행 매뉴얼이 체계적이고 내용이 간결해 이해하기 쉬웠어요”

“디지털 세대와 시민성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지 및 정서적인 측면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지도자 교육 세미나 참여 소감 발췌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학교폭력 예방교육(중고등)



• 노원청소년센터 지도자 교육



날짜	장소	내용
2023년 8월 29일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현장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 교육의 필요성과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교육 및 교구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공개 지도 세미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연구 내용, CEMD 인성교육 이론과 디지털 시민교육 모델 등을 소개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수원시교육지원청	교사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CEMD 이론 기초 및 CEMD-D 디지털 교육 방법론의 실재를 교육했습니다.
2024년 1월 7-9일, 8월 7-9일	특수분야 교육연수	서울시 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성 기본역량,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노원청소년센터	센터 소속 강사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시민교육, CEMD 이론 기초 및 CEMD-D 디지털 교육 방법론의 실재를 교육했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모델 및 방법론 교재



임팩트 4.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기여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위한 선제적 대응

푸른나무재단은 유튜브 등 SNS 내 아동 대상 유해 콘텐츠를 상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90건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유해매체로 신고했고, 이 가운데 1,883건이 삭제됐습니다.

또한, 유해콘텐츠의 단순 삭제에 머물지 않고 반복 게시 차단 및 유형별 사례 데이터화를 수행해 디지털 안전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미디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 및 폭력 예방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및 삭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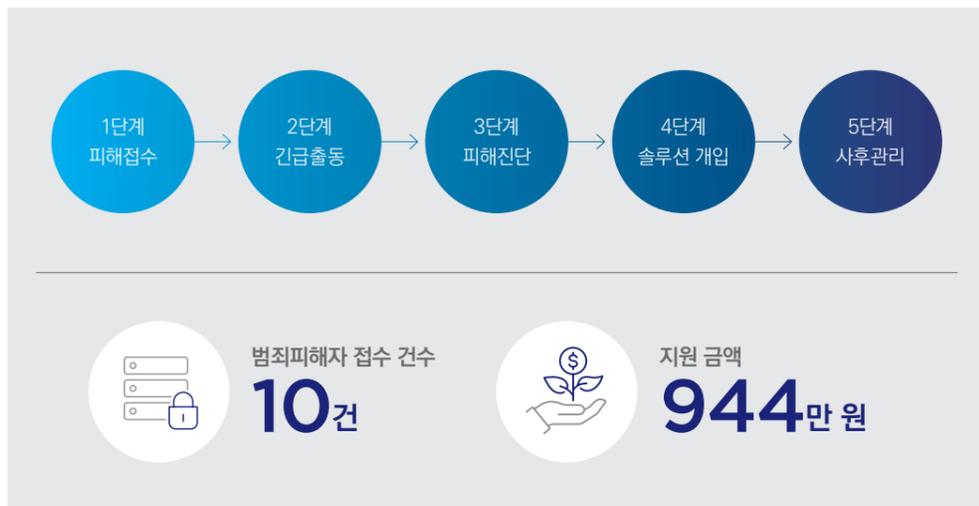
유해 콘텐츠 삭제 사례

#아동안전	#혐오표현
'액체괴물'이라는 아동용 콘텐츠에 성적인 내용을 삽입해 영상을 재편집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십 개의 채널로 놀이 문화처럼 확산되어 아동에게 위험하다는 판단에 신고 조치했고 삭제가 완료됐습니다.	대참사의 피해자와 유족을 비인격화하거나 피해 사실을 조롱하는 내용이 업로드된 사례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소재로 한 유해 콘텐츠가 매년 참사 발생일 전후로 집중적으로 게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범죄 피해 통합 지원체계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현

푸른나무재단은 디지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5단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체계는 상담·의료, 법률, 생활, 장학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포괄하며, 위기사례 피해 예방, 피해자 회복과 재적응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참여기간 총 10명에게 944만 원의 실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개입을 시행해왔습니다.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범위
상담 지원	푸른나무재단 및 지역 내 상담기관 이용 연계	심리검사 및 상담
의료 지원	• 대상자 해당 지역 병원 연계 치료비 등 지원 • 푸른나무재단 협력기관(강북삼성병원) 진료 및 치료 지원	• 신체 상해 치료 • 정신과 치료 • 의약품 구매 등
법률 자문	푸른나무재단 협력기관(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자문 및 상담지원	민사/형사소송 상담
생활 지원	• 학교폭력으로 인해 긴급하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지원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및 사망사건 발생 시 빈소 확인 후 조화 발송 및 조문	• 생활유지비(관리비, 월세 등) • 조화 • 조의금
장학 지원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	• 등록금, 학원비 • 교재비, 취업지원비

소셜 미디어를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푸른나무재단은 디지털 시민성 증진 및 사이버폭력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홍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

카드뉴스

정보제공형
디지털 시민성 및 사이버폭력에 관한 정보제공 콘텐츠를 게재하여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의식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함

제작 수 **97**편 | 게시 건수 **285**건 | 조회수 **214**만 회

이벤트형
이벤트를 통해 흥미를 갖고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제작 수 **80**편 | 게시 건수 **207**건 | 조회수 **63**만 회

영상 콘텐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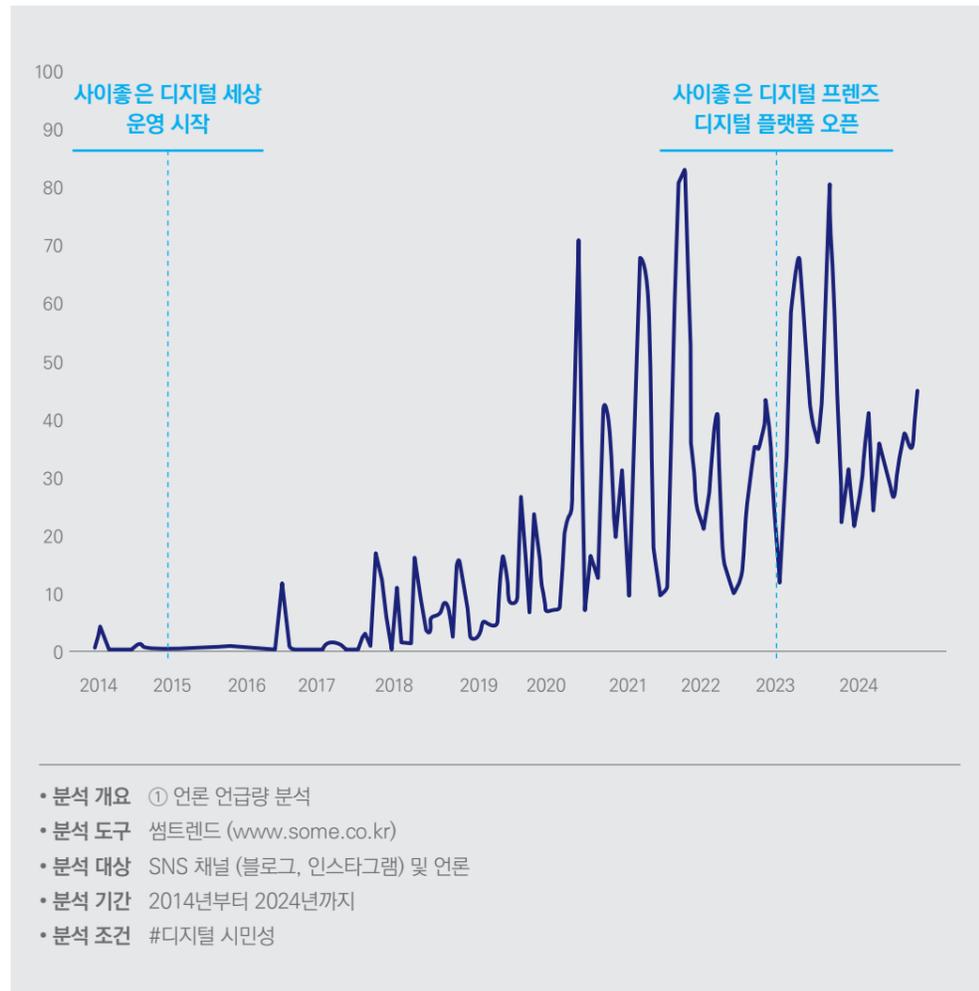
1분 유스	푸른나무시네마	Youth 퀴즈	텔레마 토론
학교폭력·사이버폭력에 관한 지식을 1분 만에 알아보는 콘텐츠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콘텐츠 분석 및 견해 제시	청소년 현장 전문가 발굴 및 소개 콘텐츠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이슈를 텔레마 토론 형식으로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 수 103 편 구독자 수 2.8 천명 조회수 56 만 회			

임팩트 5. 디지털 시민성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일반 시민 언급량 증가

일반 시민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인식 개선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툴인 썬트렌드를 활용한 키워드 언급량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와 언론에서 다뤄진 '디지털 시민성' 키워드 언급량의 트렌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언급량이 급격히 증가한 후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사업의 디지털 플랫폼이 오픈된 현재까지 계속하여 언급량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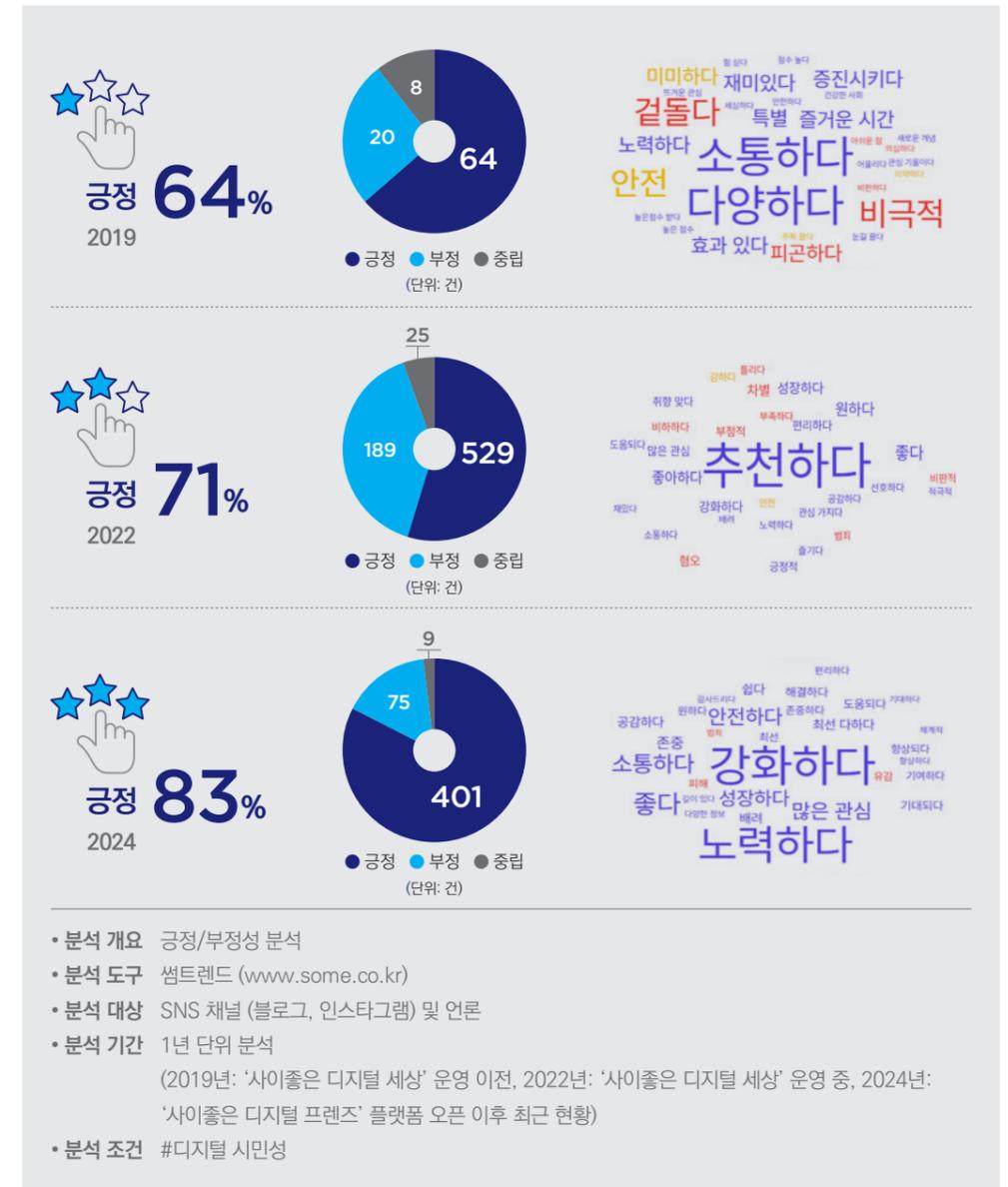
'디지털 시민성' 언급량 분석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긍정적 언급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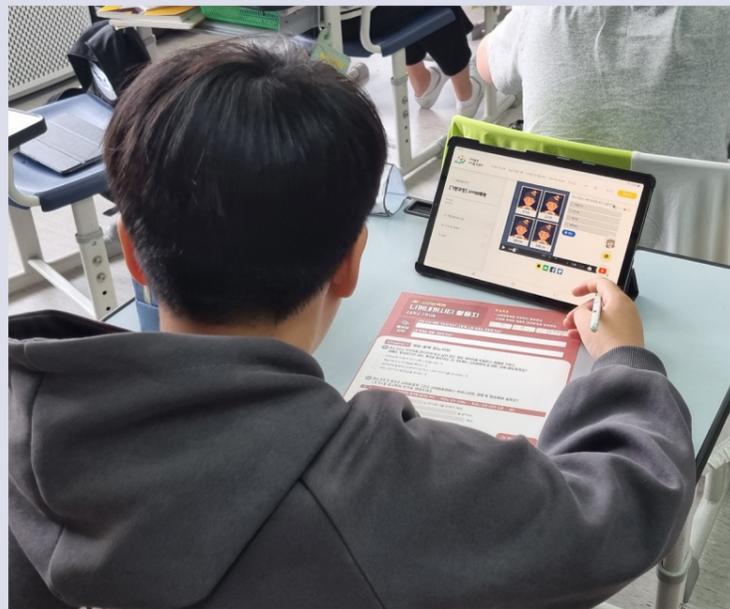
또한, '디지털 시민성'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단어를 분석한 결과 함께 언급되는 단어들 가운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의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언어 사용의 변화라기보다는,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사회 전반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시민성' 긍정·부정 언급량 분석



2024 IMPACT REPORT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는 지속가능한 교육 확산 발판 마련

푸른나무재단은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개발 ▲단체 교육 지원사업 ▲유해 콘텐츠 삭제 센터 운영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진행되어 그 효과가 검증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시킨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도입은 주요 성과 중 하나입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는 교육 대상의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참여자를 양성하며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푸른나무재단은 일회성 교육 시행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지도자를 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으며 사이버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며 현장의 사이버 폭력 피해 최소화에도 힘썼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기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가치관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슬기롭게 정보를 판별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 푸른나무재단의 활동은 한국의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는 지속가능한 교육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푸른나무재단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실시간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령,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학습 환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소외계층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p>정책 제도화</p>	 <p>글로벌 확산</p>	 <p>교육 대상 확대</p>	 <p>디지털 시민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 법/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 • 공교육 내 디지털 시민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콘텐츠 개발 및 해외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 • UN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디지털 시민교육 모델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영한 교육 콘텐츠 지속적 보급 • 대학생(후기청소년) 및 유아 대상을 위한 과정 개발 • 학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민성 인덱스 표준화 • 디지털 시민 교육 효과에 대한 중단 연구

또한, 청소년의 참여를 중심에 둔 정책 제안 및 공론장 운영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청소년 권리를 사회에 제안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 등을 아우르는 전 세대 디지털 시민성 연대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디지털 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기술의 진보가 곧 사회적 진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선도적 민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